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83호 (2013-13) 발행일 : 2013. 03. 29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유형, 주택비용부담, 점유형태, 주거기간 등 주거행태가 결혼과 출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주거행태에 따라 출산력 차이가 발생하므로,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이삼식 연구위원

1. 배경

-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의 빠른 이행을 경험하였음.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3 이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그간의 저출산대책들의 접근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기도 함
- 일반적으로 저출산대책들은 원인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현상을 야기하는 인구학적 원인으로는 만혼화,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육아 지원 인프라 미흡, 자녀양육비용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등이 제시되어 왔음.
 - 이러한 원인들 중 주거문제는 만혼화의 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출산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 되어 왔음
- 이와 관련 현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주택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주택특별공급정책
 - 신혼부부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배우자의 소득 존재 시 120%)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주체 공급 85㎡ 이하 주택 10%,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급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15%, 국민임대주택 30% 등 연간 5만호 공급
 -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특별 공급

○주택마련자금 지원 정책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대해 국민주택(85㎡ 이하)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신혼부부는 임대 보증금으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와 월 임대료로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 장기저리 주택자금지원제도로 일반가구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4,000만원 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3자녀 이상은 1억5천만원), 금리 5.2%(3자녀 이상은 4.2%)로 대출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로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신혼부부 3천5백만원)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8천만원(3자녀이상 가구 1억원)을 금리 4.0%로 대출

○그러나 일각에서 현 주택정책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미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 본고는 한국사회에서 주택과 결혼 및 출산과의 연관성 정도와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만혼화 현상을 완화하고 출산을 촉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39세 유배우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2012.5.21~6.1 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주거행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함

○본 분석 결과는 저출산대책으로서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고찰

■ 주택유형 및 주거밀도와 출산행태

○스웨덴 도시지역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주택규모의 축소로 분석되기도 함. 방 1개와 주방으로만 구성된 주택유형이 표준화된 이후 1인당 주거밀도가 낮아져 부부들이 가족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발생하였음(Kulu and Vikat, 2007)¹⁾

○Kulu와 Vikat(2007)는 핀란드의 출산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율이 가장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특히,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셋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독주택의 특성 상 주거공간이 넓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Peled(1969)는 이스라엘 자료를 활용하여 더 넓은 주택으로의 접근성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²⁾. Ström(2009)은 스웨덴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규모와 방의 개수가 첫째아 출산의향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³⁾

1) Kulu, H. and Vikat, A.(2007). Fertility Differences by Housing Type: The Effect of Housing Conditions or of Selective Moves?. Demographic Research, 17(26), pp.775~802

2) Peled, Z.(1969). Problems and Attitudes in Family Planning. Mimeo: The Israel Institute of Applied Social Research.

3) Ström, S.(2009). Housing and First Births in Sweden, 1972–2005. Stockholm University. Stockholm Research Reports in Demography 2009:6.

○반면, Curry와 Scriven(1978)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유형과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아파트 거주가 출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음⁴⁾

-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이사를 통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등 주택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면, 저출산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임

■ 주택점유형태와 출산행태

○Mulder(2006)에 따르면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때 자녀 출산 결정이 촉진되나, 한편으로 적절한 주택을 찾을 때까지 자녀출산을 연기하게 됨⁵⁾. 특히 자녀 양육비용과 주택 구매비용이 경쟁관계에 있을 때, 주택 소유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간접적으로 미혼자들이 주택 소유가 어려울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추어지고, 이로 인해 결혼 시기가 지연됨

- Krishnan(1988)은 캐나다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을 소유하려는 부부일수록 자녀 출산을 연기하나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는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나타남⁶⁾. 구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2.20명이었던 반면,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평균 1.38명을 출산하였음. 주택소유 순효과로 약 0.42명이 더 많게 나타남
- Vignoli 외(2011)가 이탈리아의 「Family and Social Subjects」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무자녀 여성(20~45세)들이 현 주거 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안정감의 수준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 환경에 대한 심적 안정감과 출산의향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

○한편, 주택 소유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도 존재함

- 주택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자녀 양육비용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자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됨 (Mulder and Billari, 2006)⁸⁾. 특히 주택 소유에 대한 문화가 강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적고, 임대가격도 비싼 사회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이나 출산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Murphy와 Sullivan(1985)은 전후 영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첫 자녀를 늦게 출산하는 경향이 있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 비하여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서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남⁹⁾.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혹은 용자금을 충분히 갖을 만큼 본인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까지 자녀 출산을 연기하기 때문임

■ 주택가격과 출산행태

○주택을 임차하든 구입하든 지출 비용이 상당히 커 많은 부담이 되며, 이로 인하여 결혼이나 출산 등 비용 지출이 큰 생애사건들과 상충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특히 결혼 당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그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임

4) Curry, J. P. and Scriven, G. D.(1978). The relationship between apartment living and fertility for Blacks, Mexican-Americans, and other Americans in Racine, Wisconsin, *Demography*, 15(4), pp.477-485.

5) Mulder, C. H.(2006). Home-ownership and family forma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1(3), pp.281-298.

6) Krishnan, V.(1988). Homeownership: its impact on fertility. Edmonton: The University of Alberta, Department of Sociology (Research Discussion Paper 51).

7) Vignoli, D., Rinesi, F., and Mussino, E.(2011). A Home to Plan the First Child? Fertility Intentions and Housing Conditions in Italy. *Universita degli Studi di Firenze Dipartimento di Statistica*.

8) Mulder, C. H. and Billari, F. C.(2006). Lowest-low fertility and home-ownership regimes. In: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Liverpool, UK.

9) Murphy, M. J. and Sullivan, O.(1985). Housing tenure and family formation in contemporary Brit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 pp.230-43.

- Börsch-Supan(1986)이 1976~1977년 연간 주택조사자료 중 3개 대도시 지역의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족형성이 주택비용과 강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Simon과 Tamura(2008)가 미국의 1940~2000년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urvey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과 출산율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나며, 그 관계는 최근으로 갈수록 더 강해짐¹¹⁾
- Hui 외(2012)가 홍콩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가 1% 상승할 때마다 출산율이 0.2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¹²⁾

■ 본 분석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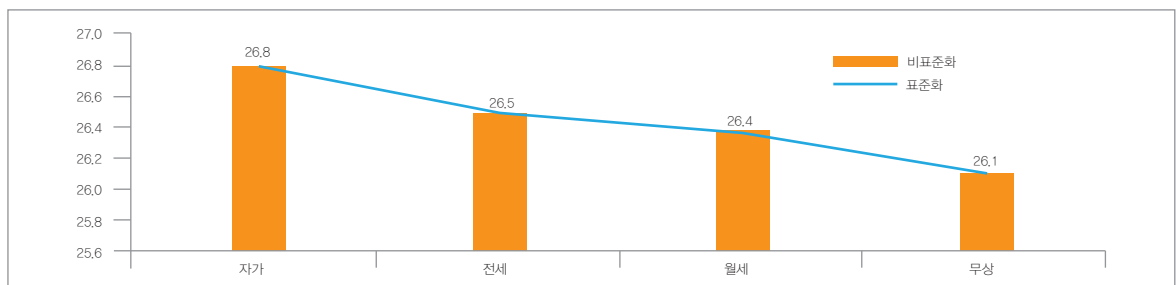
-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출산을 통해 가족규모가 확대됨. 이러한 가족은 집을 필요로 하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그 규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마련으로 주택은 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외국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주거행태는 결혼과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부분적으로 그 방향성은 일치하지 않음.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관습이나 정책에 있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라 주거 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영역이 되고 있음. 이는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연구주제임

3. 분석결과

가. 주거행태와 결혼행태

- 결혼 당시 주택점유형태별 여성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자가 26.8세, 전세 26.5세, 월세 26.4세, 무상 26.1세의 순으로 나타남. 주거행태별 유배우여성 집단 간 연령분포 차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연령표준화(age standardization) 후에도 순위는 동일
- 이는 비용부담이 큰 주택점유형태를 처음부터 선택할 경우 비용 부담(장기간 직장생활 등을 통한 자금축적 등)으로 인하여 그만큼 혼인연령이 늦추어질 수 있음을 의미

[그림 1] 유배우여성의 결혼 당시 주택점유형태별 초혼연령(전국)



주: 무상은 주로 '(사)부모집' 이 해당됨.

10) Börsch-Supan, A.(1986). Household formation, housing prices and public policy impac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0(2), pp.145-164
 11) Simon, C. J. and Tamura, R.(2008).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1), pp.33-42.
 12) Hui, E. C. M., Zheng, X., and Hu, J.(2012). Housing price, elderly dependency and fertility behaviour. Habitat International, 36(2), pp.304-311.

나. 주거행태와 출산행태

- 유배우여성(20~39세)의 주택유형별 출산력 평균 출생아수는 단독주택(2.04), 다세대·연립주택(1.83), 아파트(1.78)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연령 표준화 시에는 동일한 순위)

○이는 공간적인 여유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간주

〈표 1〉 유배우여성(20~39세)의 거주 주택유형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연령비표준화	2.04	1.78	1.83
연령표준화	2.05	1.78	1.84

주: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원룸, 오피스텔 등 20명이 포함되어 있음.

- 주택점유형태별 평균 출생아수는 월세(1.96명), 무상(1.93명), 자가(1.89명), 전세(1.6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연령 표준화 후에도 동일 순위)

○무상이나 자가의 경우 전세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아 보다 많은 출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거불안정이 높은 월세의 경우 출생아수가 자가 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 계층이 주택점유형태 이외 요인들(예로 일반적으로 출산력이 높은 저학력층 등의 특성을 가짐)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아 출산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 유배우 여성(20~39세)의 현 주택 점유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부모집)
연령비표준화	1.89	1.63	1.96	1.93
연령표준화	1.86	1.69	2.03	2.01

○결혼 당시 주택점유형태가 현재의 주택점유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출산이 촉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이 억제되는 경향 존재

- 결혼할 때부터 자가로 살고 있는 경우 출생아수는 1.73명으로 부모집(무상)에서 살고 있는 경우 1.85명에 비해 적는데, 주된 이유는 주거안정성은 확보하였을지라도 주택 구입 시 비용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한편, 부모집 거주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여 보다 많은 출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결혼 당시부터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출생아수는 평균 1.62명으로 아주 적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이 억제된 결과로 해석 가능
- 자가에서 전·월세로 하방향적 이동을 하는 경우 평균출생아수는 1.85명으로 비교적 많으나, 연령 표준화 이후 1.75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짐. 이러한 이동을 경험한 유배우여성들은 주로 고연령층으로 표면적으로 출생아수가 많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구경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출산이 억제된 것으로 보임
- 이와 반대로 전·월세에서 자가로 상방향적 이동을 하는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97명으로 연령표준화 이후(1.92)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거안정화 과정에서 출산이 촉진된 것으로 해석.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집(무상)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경우(평균출생아수 2.20명)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표 3〉 유배우 여성(20~39세)의 결혼 당시와 현재 주택점유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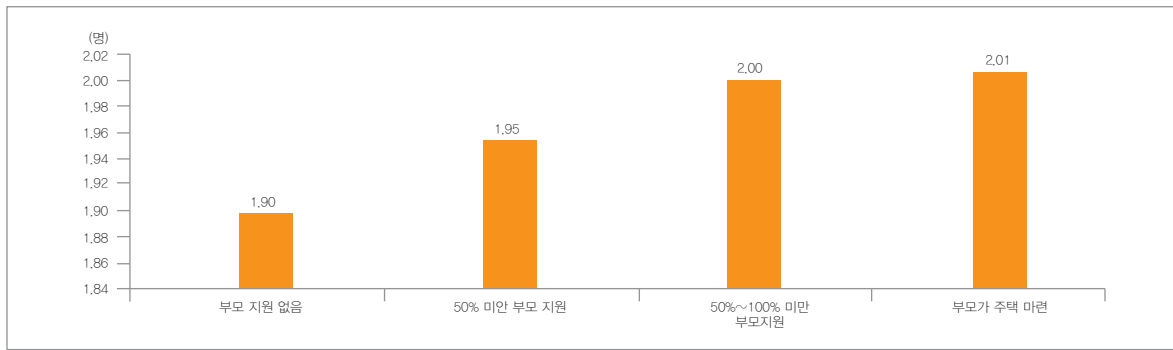
구분	자가- 자가	자가- 전월세	자가- 무상	전월세- 자가	전월세- 전월세	전월세- 무상	무상- 자가	무상- 전월세	무상- 무상
연령비표준화	1.73	1.85	2.00	1.97	1.62	2.08	2.20	2.15	1.85
연령표준화	1.77	1.75	1.90	1.92	1.70	1.98	1.95	2.16	2.07

주: 무상은 주로 '(사)부모집'이 해당됨

■ 주택마련에 대한 부모의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평균 2.01명, 50~100% 미만 지원 2.00명, 50% 미만 지원 1.95명,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1.90명 등으로 감소(연령 표준화 이후 1.90명, 1.92명, 1.99명, 2.01명으로 유사)

[그림 2] 결혼 당시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모의 지원정도별 평균 출생아수



■ 주택규모가 클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게 나타남

○ 평균 출생아수는 115㎡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0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82~115㎡ 경우 1.83명, 82㎡ 이하 1.74명(연령 표준화 후에도 순위는 동일)

〈표 4〉 유배우여성(20~39세)의 주택규모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82㎡ 이하	82~115㎡	115㎡ 이상
연령비표준화	1.74	1.83	2.03
연령표준화	1.80	1.82	1.97

■ 현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안정되어 출생아수도 많게 나타남

○ 현 주택에서 1년 미만 거주 시 출생아수는 평균 1.48명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으며, 다음으로 1~3년 이하 거주 시 1.61명, 3~5년 거주 시 1.87명, 5~7년 이하 거주 시 2.06명, 7년 초과 거주 시 2.09명 등

〈표 5〉 유배우여성(20~39세)의 현 주택 거주기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1년 이하	1~3년 이하	3~5년 이하	5~7년 이하	7년 초과
연령비표준화	1.48	1.61	1.87	2.06	2.09
연령표준화	1.65	1.71	1.87	2.06	2.07

다. 주거행태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

-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자가소유(준거집단)인 경우에 비해 전세인 경우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주택소유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전셋집은 주거불안정을 의미하여, 향후 자기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 부담 등으로 출산을 연기 내지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주택유형의 경우 단독주택(준거집단)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그 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유사하나 근린환경은 오히려 단독주택의 경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임
- 거주기간의 경우 1~3년을 제외하고는 길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출산을 하여 한 주택에서의 장기간 거주는 주거안정성을 높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6〉 유배우여성(20~39세)의 주거행태가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07	0.26 ***	1.20	0.25 ***	1.08	0.26 ***	1.16	0.25 ***
거주지(농촌)								
도시	-0.06	0.05	-0.07	0.05	-0.08	0.05	-0.09	0.05
교육수준(고졸 이하)								
대졸이상	-0.09	0.04 *	-0.08	0.04	-0.10	0.04	-0.11	0.04 **
취업여부(비취업)								
취업	-0.25	0.04 ***	-0.26	0.04 ***	-0.25	0.04 ***	-0.24	0.04 ***
현연령	0.10	0.01 ***	0.10	0.01 ***	0.10	0.01 ***	0.10	0.01 ***
초혼연령	-0.10	0.01 ***	-0.10	0.01 ***	-0.10	0.01 ***	-0.10	0.01 ***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0.13	0.06 *	-0.14	0.06 *	-0.15	0.06	-0.18	0.06 **
고소득	-0.04	0.08	-0.04	0.08	-0.05	0.08	-0.12	0.08
주택점유(자가)								
전세	-0.10	0.04 *						
월세	0.17	0.09						
무상	0.13	0.07						
주택유형(단독)								
아파트			-0.14	0.05 **				
연립다세대			-0.06	0.07				
거주기간(1년 이하)								
1~3년 이하					0.10	0.06		
3~5년 이하					0.17	0.06 **		
5~7년 이하					0.21	0.07 **		
7년 초과					0.16	0.06 *		
주거면적(82m ² 이하)								
82~115m ²								
115m ² 이상								
F	72.4***		79.1***		64.8***		77.6***	
Adj R ²	0.33		0.33		0.33		0.32	
n	1,447		1,451		1,446		1,44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상은 주로 '(사)부모집'이 해당됨

- 주택면적이 82㎡ 이하(준거집단)인 경우에 비해 115㎡ 이상인 경우 보다 많은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면적이 115㎡ 이상인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이유는 1자녀에서 2자녀로 이행보다 2자녀에서 3자녀로 이행 과정에서 주택면적 확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임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분석에서 주거문제는 만혼화 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주거마련 부담이 클수록 결혼이 지연되고 있음. 결혼 당시 전 ·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 자가를 선택하는 경우에 결혼을 상대적으로 더 늦게 하고 있음
 - 출생아수는 단독주택, 다세대 ·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등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비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할 경우 심적 · 물리적으로 공간에 대한 여유가 보다 충분하기 때문일 것임. 주택점유형태별로는 월세, 무상, 자가, 전세 등의 순으로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가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가구입 비용부담이 커 출산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임. 주거가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혹은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산이 촉진되고, 불안정하게 유지(혹은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산이 억제되고 있음. 주택마련비용의 경우에는 주택 마련 시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을 촉진하고 있음. 주택규모는 다자녀 출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출산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 다만,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주택의 영향력은 주거행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므로 주택정책은 주택 공급 혹은 전세 · 구입자금 대출의 획일적인 접근보다 주거행태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더 효율적일 것임
 -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독립 혹은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소형아파트(분양)와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되, 자녀의 수와 연령에 적절한 주거 면적과 구조를 갖추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녀 수 증가 혹은 자녀 성장에 따른 주택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함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액 수준을 특히 도시지역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율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긴 주거기간은 주거안정성을 높여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부 OECD 국가에서와 같이 전 · 월세액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됨

집필자 | 이삼식(인구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의 | 02-380-8226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